
2019년 제1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9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19. 10. 31.(목) 14:00~18: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19건 31작품 (조각 22작품, 미디어 1작품, 회화 8작품)
- ◆ 결 과: 승인 12작품, 부결 19작품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1번 안건: 민들레-바람을 타고

- 변경된 작품설치 위치나 작품의 서정성은 무리가 없음. 다만 예술적 표현의 해석이 대중 친화적이고 작품정보다는 설명적인 부분에 역점
- 파이프 부분과 관련된 안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음
- 기존에 설치된 작품을 봤을 때 유지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흠씨 부분에 때가 타서 흉물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음
- 실제로 놓일 때 유지 관리,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음
- 옥외 자연환경에 취약한 구조
- 동일 작가의 유사작업이 많지만, 이번 작업은 약간의 변주가 있어 흥미로움
-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평범함
- 평범한 주제를 평범하게 해석함

□ 1-2번 안건: 수직의 정원

- 조형성이나 표현은 무리가 없고 참신해보임
- 다만, 유사한 작품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대중의 다양한 미적 체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함
- 이전 작품보다 훨씬 좋음
- 독창적인 조형어법 확보
- 작품성도 좋고, 독특한 아름다움도 느껴짐
- 옥외 자연환경에 취약한 구조
- 다른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 특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1-3번 안건: layered light

- 조형성과 창작적 측면에서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무리 없는 작품
- 작가의 창작맥락과도 일관성이 있는 조형작품
- 입구 초점으로 적합해보이나, 단이 다소 높아 보임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이전 작품보다 훨씬 좋음
- 이제까지 제안된 작품 중에 가장 좋음
- 작품성 좋음
- 내용과 형식은 진부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조명이 꺼진 상태에도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음
- 평소 작가가 빛을 이용해서 작업도 많이 하고, LED의 안전성도 확보되었지만, 빛과 공기의 입자의 만남이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음

□ 2번 안건: 행복한 여행

- 주민참여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는 등, 공공 미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바람직하나, 조형의 표현이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작품성이라는 측면을 간과된 듯함
- 조형어법 또한 신선하다고 볼 수 없음
- 마을의 유래, 주민과의 접점을 작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은 좋으나 형식이 상투적이고 자칫 조잡스러워질 수 있음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어떤 연관성 상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공공미술의 개념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 작품으로 보임
- 건축 공간과 잘 조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 내러티브가 약하고 억지스러운 느낌도 듦

□ 3번 안건: Think-발상의 전환

- 머리가 큰 부분이 조금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독특한 면도 느껴짐
- 작품의 완결성은 좋으나, 거꾸로 있는 인물의 형상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짐
- 개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공공 조형으로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음
- 면 처리방식이 평범하지만 작품성은 느껴짐
-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주변 장소와 어울리지 않음
- 작품의 조형적 표현이 작가적 상상력에 미치지 못함
- 조형어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평이함
- 평이한 조형성이 아쉽고 맥락적 일관성이 부족한 자기 복제적 성향의 작품
- 작품 타이틀과 잘 매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 4번 안건: 바람으로 부터

- 주거 공간과 잘 맞고, 이런 종류의 작업 중에 가장 산뜻하고 세련됨
- 무난하고 공간과 잘 어울림
- 주변 환경과는 잘 어울림
- 작품에서 세련미가 느껴짐
- 작가적 개성을 느끼기 어려운 평이한 추상작품
- 공공적 맥락이나 작품성 판단이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이 느껴져 아쉬움
- 단순하고 깔끔하나 작품으로서 아우라는 느끼기 어려움
- 익숙하고 평이한 조형어법
- 개인전 성향도 지금 현재 작품과 달라보여서 아쉬움

□ 5번 안건: 한글인-아침

- 한글이라는 의미 강조가 조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한글에 대해서 모티프를 따서 작업을 하지만, 왜 이 장소가 한글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소재와 형식이 평범하여 아쉬움
- 작품의 내용이나 조형적 표현이 평이한 작품으로 유사작품 다수
- 내용적 맥락이나 조형어법이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성을 대변하지 못함
- 장소적 맥락 반영되지 않아 메시지가 공허한 추상조형
- 예술적인 긴장감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음
- 한글로 구성된 조형미가 어색하여 미적 감흥을 느끼기 어려움

□ 6번 안건: 사랑의 미학-열정과 환희

- 대중적인 조형성을 지니고 있어 독창성을 느끼기는 어려움
- 주제의 표현이나 조형성이 설명적이고 평이함
- 작품성이나 작가적 개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움
- 장소적 맥락 해석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작가의 작품 목록에서 목록이 아닌 대표 작품이미지를 볼 수 있으면 심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음
- 조형언어가 다소 평범하고, 작가의 개성을 느끼기 어려움
- 주제의 해석이 일차적인 부분이 아쉽고, 이에 따라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 7번 안건: ILLUSIOM(일루전)

-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지 못하여 왜 '일루전'인가? 라는 의문이 듦
- 작가의 창작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
- 환경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왜소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 작품자체로서는 무리 없는 무난한 작품
- 조형적 긴장감이 부족하며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석 부족
- 리듬감이 느껴지는 유니크한 작품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새롭거나 참신함을 느끼기는 어려움
- 예전 작품보다 좋다고 보기 어려움

□ 8번 안건: HAPPINESS BUTTERFLY

- 옥외 조명 형식과의 차별성 검토
- LED 설치미디어의 속성상 미디어 독립적 콘텐츠 운영과 더불어, 설치미디어의 조형적 표현이 중요한데, 조형적으로 평이하고 콘텐츠 또한 부족해보임
- 미디어를 사용했다는 점 외에는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느껴짐
-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콘텐츠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전 작품보다는 낫지만, 영상내용에서 예술성을 쉽게 느끼기 어려움
- 작품 가격이 과다함
- 유명한 작가님의 미디어 패널만 있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작품
- 영상작품으로서 완결성은 인정되나 외부공간에 영상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듦
- 주제가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평이함

□ 9번 안건: 세잎클로버

-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는 작가고, 기존에 설치된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데, 공공미술로서 제안된 작품은 아쉬움
- 작가의 이전에 설치된 작품이 오히려 더 좋음
- 작품성 고려 부족한 평이한 거리 조형물. 작품형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설치 위치 또한 부적절함
- 조형적 신선함을 느끼기에는 평범함
- 표현방식은 유니크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미에서 예술적 긴장감을 느끼기 어려움
- 조형언어와 디자인 모두 평이하여 작가의 개성을 느끼기 어려움

□ 10번 안건: 0의 시작

- 작품 자체는 무난하며, 이전 작품보다 좋음
- 작가가 갖고있는 작업형태를 기존의 사람형태가 아닌 단순 조형 형태로 시도한 점은 좋으나, 애매한 느낌이 듦
- 재료의 변화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짐
- 작가의 면 처리 방식은 특이하지만, 조형이 평이한 느낌
- 건축물과의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장소적 맥락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조형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으나 작가의 개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평이한 조형
- 평소작품의 재해석 경향이 강하고 신선함이 부족한 모호한 작품
- 평이한 조형과 해석
- 조형언어가 좀 더 신선했으면 좋겠음

□ 11-1번 안건: Memory

- 다소 평이한 추상작품. 작품성이나 작가의 개성 있는 조형어법이 부족해 보이는 조각 작품
- 공간에는 무리 없이 어울리는 무난하지만 가벼운 터치와 장식적 작품
- 비슷한 조형어법을 지닌 유사한 작품들이 많음
- 기시감이 큰 익숙하고 평이한 작품
- 작가의 개성을 느끼기에는 익숙하고 평이한 조형성
- 리듬감이 느껴지는 작품
- 작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 11-2번 안건: Ficus benjamina-Light I, Light II

- 아크릴 액자를 씌운다고 했기 때문에 아크릴 액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작 방법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도서로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설치작품이 아닌 회화작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함. 심의도서 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함
- 캔버스에 붙이는 기법이 특이한데 심의 도서 상 도면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고, 어떠한 설명도 안 나와 있어서 의문이 듦
- 오브제의 다양한 반사가 어우러지는 흥미로운 작품
- 공간과도 무리 없이 어울리는 평면 작품
- 디테일 형태와 색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
- 재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좋음
- 이제까지 작품 활동을 한 이력을 보면 기법적 측면에 대한 완결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두 작품과의 상호 연관성이나 긴장감이 느껴지면 좋을듯함

□ 12번 안건: "play time"

- 전통놀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과 친밀감은 있으나 많이 보아온 익숙한 형상
- 전체 공간을 익숙한 시리즈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줬으면 좋겠음
- 대중의 작품 향유권을 하나의 작품으로 강요하는 느낌도 듦
- 11억이라는 예산으로 전체를 긴장감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지만, 놀이를 연쇄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 단순나열 이상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음
-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작품 해석이 들어간 점은 굉장히 좋으나,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듦
- 유사 작품 다수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가벼운 터치로 유쾌함은 있으나 작품으로서의 흥미와 깊이가 아쉬운 장식적 작품
- 한 작가의 작품을 늘어놓은 것 밖에 없는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 구성
- 대중의 향수권을 위해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음
- 예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산 배치하는 접근은 참신하나 작품 자체의 흥미는 떨어짐
- 건축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이미 익숙한 작품으로 특별한 점을 느끼기는 어려움

□ **13번 안건: 바람-바램-함께/Wind-Wish-With,2019A0010,2019A0011,2019B0010**

- 통일성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나, 각각의 층에서 주는 변주는 약함
- 층층마다 장소적 부분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내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비좁고, 공공성이 결여됨
- 다소 가벼운 터치, 회화적 깊이가 아쉬운 평이한 추상표현 작품
- 작가적 개성이나 회화작품으로서의 신선함을 느끼기 어려운 평면작품
- 내용을 읽기 어려운 추상회화로 장식물 이상의 역할이 힘든 것 같음
- 공간에 대한 해석이 부족함
- 대중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음
-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간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것 같음
- 가격이 좀 과다한 점도 있음

□ **14-1번 안건: construction**

- 조형성도 무리 없고, 작가 경향과도 잘 맞닿아 있는 작품
- 작가의 이전 작품과도 잘 연결된 작품
- 참신하고 예쁘게 느껴지는 작품
- 색상도 신선하고, 컬러링된 부분이 특이하고 좋은 작품
- 건축물과의 색상 조화 문제가 있을 듯하지만 건축공간과는 잘 어울림
-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쉽고 평이한 표현의 조각 작품
- 깊이 있는 작품성이나 조형적 신선함을 느끼기 어려운 평이한 조형작품

□ 14-2번 안건: 공간규정

- 첫번째 작품은 특이하고 참신한 부분이 있지만, 첫번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은 특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평범한 작품
- 조형물의 색상이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장식성은 있으나, 공간에 비해 빈약하고 시각적으로도 개성을 느끼기 어려운 평이한 작품
- 일반적이고 보편적 조형보다 오히려 나음
- 기초 조형의 느낌으로 다소 평이함
- 작가의 이전 작품과 연관은 있으나, 작품이 주는 긴장감이 부족하고 평이한 느낌

□ 15번 안건: 미래를 향하여

- 벤처맨으로서 공간하고 잘 어울리고 조형적으로 깔끔하여 작품의 완결성은 있지만, 이 작품이 모습이 현대적인 벤처맨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됨
- 인체 형식의 독창성을 느끼기는 어려움
- 장식적이고 설명적인 거리 조형물
- 예전에 했던 거의 유사한 작품이 있지만, 재질을 바꿔서 다시 들어와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됨
- 조형물의 색상이 건물하고는 잘 어울리는 작품
-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일차적인 묘사가 아쉽고, 조형적 해석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움
- 유사 작업과의 변별성이 부족하며 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취성도 부족
- 유사한 작품이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소 특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명판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아쉬움
- 인체 조형성은 개성이 느껴짐

□ 16-1번 안건: 공간의 단상

- 창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산업단지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기대했지만, 지금 제안된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익숙한 작품들이 들어와서 아쉬움
- 작업 자체가 익숙한데, 흥국생명 앞 버스정류장(도시갤러리)과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이 듭
- 미술작품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으로 들어온 느낌이 듭
- 조형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가? 즐거운가? 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고 미술작품으로서 판단이 어려움
- 조경 적으로 Street furniture였다면 나쁘지 않은 작품이고, 5년 있다가 없애거나,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할 텐데, 한 장소에 변화 없이 오랫동안 설치되는 미술작품으로서는 아쉬움
- 형식과 내용이 평이하야 아쉬움
- 평이한 패턴으로 장식성이 느껴지는 작품
- 공간의 중요성에 비해 가벼운 터치의 거리 조형물 느낌이 듭
- 새로움이 부족한 평이한 디자인의 조형물
- 작품가격이 과다함

□ 16-2번 안건: Imagination-환대

- 창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산업단지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기대했지만, 지금 제안된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익숙한 작품들이 들어와서 아쉬움
- 창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음
- 친근한 형태가 대중 친화적이고 공간과는 큰 무리가 없이 어울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조형작품으로서의 작품성이 아쉬운 조형물
- 장식 이상의 조형적 개성과 깊이가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음
- 장소적 맥락 해석이 부족한 작업
- 동일 작가의 동어 반복적 유사작업으로 신선함 부족
- 유사작품이 많고, 여러 번 접한 작품으로 이전 작품과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음
- 색감만 다른 작품을 여러 번 봐서 익숙함
- 조형성이 익숙하고 평이하야 아쉬움
- 가볍고 경쾌한 느낌은 듭

□ 16-3번 안건: 시각의 선율

- 창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산업단지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기대했지만, 지금 제안된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익숙한 작품들이 들어와서 아쉬움
- 개성을 느끼기 어렵고, 기계적 형태 반복의 조형물
- 공간을 장식하는 것 이상의 작품성이나 신선한 조형성이 부족함
- 작품가격 과다함
- 산만한 조형 구성이고 다소 혼잡해보이기도 함
- 장소와는 무난하게 어울림
- 조형 언어가 모호
- 세련미는 있지만 작품의 내용에 대해선 의문이 듦

□ 17-1번 안건: convergence

- 작품과는 무관하게 외부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부에 배치한 점이 이해할 수 없음(작품의 재료 또한 외부에 배치해도 문제가 없어 보임)
- 국회 스마트센터라는 장소적 특성상 시민들이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각 이외에 나머지 작품들은 의원들 라운지 같은 곳에만 배치되어 아쉽고, 전체적인 기획에 대해 아쉬움이 듦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공간을 장식하는 것 이상의 작품성이나 신선한 조형성이 부족함
- 작품 제목과 형태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건축에 놓이는 작품들이 중견 작가들의 안전한 작품을 선택했다는 점,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 등 공통점을 지닌다

□ 17-2번 안건: Allotropism(同質異形)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여자 화장실 픽토그램이 작품 감상을 방해할 것 같음
- 화장실 픽토그램 사인과 겹쳐지면 작품의 질을 저하할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신선한 형식이나 내용의 재검토 필요
- 장식성 있고, 간결한 이미지의 추상 표현 회화작품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17-3번 안건: ECOFLOW-Intergration/통합

- (권고사항)작품 설치 계획에 아크릴 박스 액자 등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먼지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음. 액자 박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왜곡된 회화의 형상이 흥미로운 간결한 이미지의 조각적 반회화 부조작품
- 공간과 무리 없이 어울림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지속적으로 감상하기에는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느껴짐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안정성은 있는데 계속 보면 조금 지루할 것 같음
- 도색의 내구성 문제가 있을 듯함

□ 17-4번 안건: 들리는 풍경

- 현대적 해석의 전통회화 작품.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일목요연한 목소리가 있는 평면작품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무난하게 실내에 어울리는 작품
- 2, 3층 라운지에 작품이 4개가 설치되는 점은 공공적인 공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17-5번 안건: 저 너머 BEYOND THERE

- 재료의 작가 개성적 표현과 평이한 주제의 해석이 두드러지는 회화작품
- 장식성에 비해 깊이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평이한 작품
- 2, 3층 라운지에 작품이 4개가 설치되는 점은 공공적인 공간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환경과 잘 어울리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17-6번 안건: 달빛 Moonscape

- 구상성이 시선을 유도함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한쪽에서는 세로로 있고, 한쪽에서는 가로로 양 쪽 벽에 위치하여 함께 보기 좋은 것 같음
- 주제의 표현이 다소 상투적이고, 재료 외에 작가의 개성적 표현과 해석이 아쉬운 회화작품
- 2, 3층 라운지에 작품이 4개가 설치되는 점은 공공적인 공간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 이 작가의 첫번째 작품(저 너머 BEYOND THERE)에 비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

□ 17-7번 안건: 연(緣)-인연

- 내용의 연결성은 약하나 색상표현은 조화를 이룸
- 평이한 주제의 평이한 해석의 추상 회화작품. 공간과는 무리 없이 어울리나 작가의 독창적 신선함 아쉬운 평면작품
- 2, 3층 라운지에 작품이 4개가 설치되는 점은 공공적인 공간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색다른 감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 장소성과 조형적 요소가 잘 어울림

□ 18번 안건: 하나의 전체-독립과 부속의 사이

- 작품이 놓이는 곳이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음
- 작가 본연의 작업과 상통하며 신선함
- 공간을 해석하는 데 흥미로운 요소가 있음
- 공간과 잘 어울림
- 건축적 성격이 강한 설치작품. 조형의 개념적 해석과 시각적 표현이 신선하지 못한 아쉬움
- 기존 작가의 작품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D/A시설이나 칼럼을 활용하여 배치했다는 점에서 좋다고 봄
- 작품가격 과다
- 투명한 부분이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참신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안전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듦
- 노출콘크리트 재료 문제가 있을 것 같음

□ 19번 안건: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2019-01

- 작품의 완결성, 숙련도 부분에서는 탁월하지만, 선을 이용한 조형어법은 진부하게 느껴짐
- 이 작품 자체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LED조명 색깔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듦
- 비슷한 작업성을 갖고 특별한 변주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아쉬움
- 형태가 새로운 형태가 아니고, 이런 작업이 작가의 개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옥외 환경에 취약한 철골 구조
- 유사작품 다수 존재
- 같은 조형을 수없이 봤음
-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조형성
- 추상적 표현이 주는 미학적 쾌감이 아쉬운 반복적 형상의 조형작품
- 장식성 이상의 작품적 가치를 느끼기 어려운 작품
- 작품성은 좋으나 시도가 다소 식상해 보임
- 작품 가격 과다
- 미적체험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31개 작품 중 1-2,3, 4, 11-2, 14-1, 17-1,2,4,5,6,7, 18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